



몸으로 걷는 사랑의 길

김혜정 베로니카 | 한국틴스타 프로그램 총괄 디렉터



몸에 대한 ‘앓’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식력 자각을 통해 청년들이 자기 존재가 지닌 고유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알아차리고, 몸에서 사랑과 성,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의 역동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은 놀랍고 신기합니다. 잘 모르고 있던 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은 성적인 존재로서 자기 결정 능력을 언제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동반하는 틴스타 교사와 청년들의 상호작용은 인격적인 관계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몸 알기(생식력 자각) 수업에 참여한 청년들과의 대화를 짚막하게 소개해봅니다.

청년 A “점액을 관찰 한 후 ‘처음으로!’ 제 몸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제 몸을 한층 더 믿게 되고, 내 몸이 건강하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틴스타 교사 “몸을 신뢰하며 나와 몸이 하나 되는 순간을 체험했네. ‘처음으로!’라고 표현할 만큼 놀라워하는 네 모습을 보니까 건강한 여성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되네. 여성의 몸을 지닌 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여성성을 알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존중하는 건강한 여성이지 않을까?”

청년 B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자친구를 예전에 제가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너무 없었어요.”

틴스타 교사 “여자친구와 너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구나. 인격을 지닌 고유한 남성성은 아버지 됨을 통해 사랑을 확장하게 된단다. 어쩌면 그동안 자기만족에만 머무는 관계였는지 모르겠어. 성적인 관계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거야”

청년 C “제 여자친구도 몸 알기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가르쳐주고 싶어요.”

틴스타 교사 “글쎄? 남자친구가 여성의 몸을 가르쳐주는 것을 정서적으로 편안해 할까? 그런데 여자친구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몸을 알았으면 싶고,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겠지?”

청년 C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제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보통의 젊은이들처럼 “저는... 다 아는데요?”로 시작한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배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몸 안에서의 역동들을 관찰하는 것이 너에겐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미친 영향이 있었을까?”

“월경 전에 짜증이 많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최고 수정일을 점액 관찰로 찾은 것도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 두 사람은 기다림을 배웠어요.”

“와~ 누구에게라도 몸 알기(생식력 자각)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나와 몸이 조화롭게 되어가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란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혼인의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이 어우러지며 함께 부부의 생식력을 가꾸게 되는 것이지. 부부가 함께 서로의 몸을 알고 기다려주면서 사랑은 몸을 통해 인격적인 행위로, 태도로 드러나게 된단다. 결혼을 축하해.”

몸을 알아가는 일은 몸에 새겨진 사랑을 여성성과 남성성을 통해 발견하고 그 사랑을 사는 일입니다. 틴스타를 통한 만남에서 ‘몸의 길’이 곧 ‘사랑의 길’임을 반복해서 알아차리게 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